

2) 변화 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했다는 이 이야기에서 빛은 생명 사건을 가리키는 메타포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 (창 1:3) 창조의 시작이 빛인 이유는 빛이 있어야만 세상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무엇이 존재하더라도 인식할 수 없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의 세상을 창세기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 1:2) 창조 전승에서 재미있는 대목은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빛을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단순히 태양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시원적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이 바로 빛입니다. 만물의 존재 근원입니다. 그걸 여러분은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3) 이런 물리적인 빛 경험보다 더 본질적인 빛 경험은 존재하는 것들의 신비에 대한 경험입니다. 여기 연필 한 자루가 있다고 합시다. 꽃 한 송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이 순간에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구 나이 45억 년 과정에서 한 찰나에 불과한 이 순간에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론적 사건입니다. 그게 빛 경험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신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반지하 예배당에서 적은 숫자의 교우들이 모여서, 일부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현상인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부르는 찬송가가 즐겁고, 기도 소리가 은혜롭고,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해주고 싶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그런 경험이 빛 경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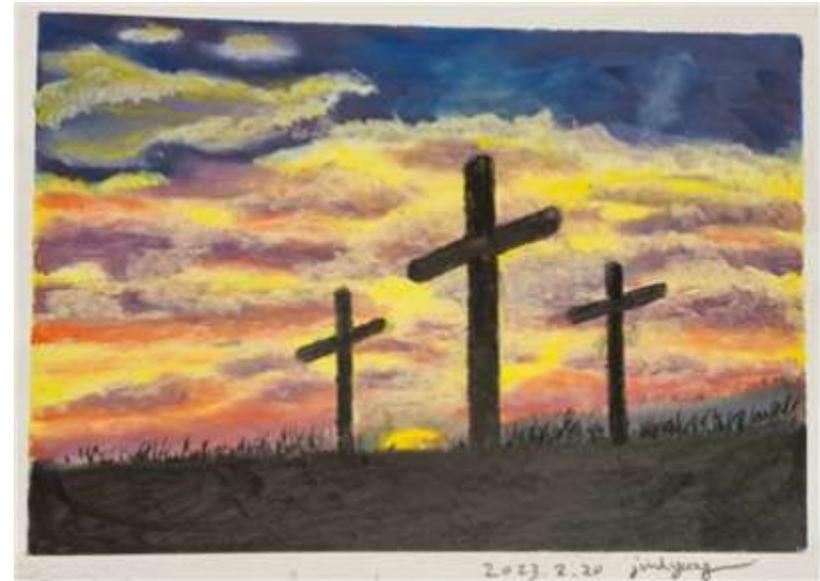
4) 예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빛을 찾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자기의 운명 전체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한 유대인 젊은이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으로, 창조의 근원(아르케)으로 보였습니다. 빛으로 변모된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 15:20)

서울센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3년 2월26일

사순절 첫째 주일
세계 교회력 「가」해 14주



김진형 목사의 2023년 사순절 그림이다. <푸른 언덕>이라는 그의 블로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필이 나온다. "예산에서 20년 가까이 목사로 살면서 자연스러운 삶을 꿈꾸며 원래의 교회,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2021년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하였습니다. 교회 역사에 관한 책과 글을 저술하면서 천안 호서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 교회사를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자연 속의 평범한 삶을 지향합니다. 어설피게나마 농사를 배워 농촌에서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싶었으나 뜻대로 잘 안된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engnim5604)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공부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o/churchs>

주일공동예배순서

개회예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3)라는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찬송 39장 (주 은혜 받으려)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우리의 생명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참되고 선하며, 궁극적으로 거룩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습니다.

미시 계(界)로부터 거시 계에 이르는, 한순간으로부터 영원에 이르는, 그리고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의 인식과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창조 이전과 종말 이후까지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최선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다.’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그 어떤 고난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영광송) ... 다 함께

이강민

[알리는 말씀]

* 사순절- 지난 수요일인 2월 22일(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절(4월 9일) 전 토요일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절기를 사순절(四旬節 Lent)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 예배 후 데칼로그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 3월에는 정목사님께서 둘째 주에 오십니다.

* 지난주일(2월19일) 헌금: 603,000원(주일헌금 113,000원 통장헌금 490,000원)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2, 3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장소
2월26일	김동호목사	고중흥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이유선 /아트컬리지5
3월5일	김동호목사	오미영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박정덕 /아트컬리지5
3월12일	정용섭목사	김기범(사회) 김용성(봉독)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오미영 /시청각실
3월19일	박재진목사	최선아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김희란 /아트컬리지5

지난 주일(2월 19일) 설교 발췌

제목: 예수는 빛이다 (마 17:1-8)

1)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며칠만 있으면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을 겁니다. 입학생을 둔 어머니들은 긴장하겠지요. 이십 명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있는 장면을 상상해보십시오. 어떤 어머니가 창문으로 그 교실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흐릿하게 보이고 자기 아이만 빛처럼 또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아이는 어머니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그런 경험은 불가능합니다. 신문 기자가 어머니의 이런 경험을 정상이 아니라고, 저 여자는 뭔가에 홀려서 잘못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벌어진 10.29 이태원 참사를 당한 가정의 부모들의 심정을 누가 똑같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과 음악가와 화가들도 평범한 일상에서 아주 특별하고 궁극적인 것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1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후대 기독교인들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져서 생명 왕권에 속한 사람으로서 용기 있게 살아가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공동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긍휼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지,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쌓여가는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다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염려에 헐썩여서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개인 참회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 선포

목사: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는 우리 생존의 근거입니다.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2천 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아뢴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기뻐하고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상투스) ... 다 함께

거룩하 - 시 다 거룩하 - 시 다 거룩하 시 도 - 다
만군의 주 하 - 나 님 하늘과 땅 - 에 가 - 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에 호 - 산 - - - 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 여
찬 양 받 으 소 - 서 높은 데 에 호 - 산 - - - 나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박화복

이건용

♩ = 96

1. 주는 나의 목자 시니 부족함이 무언가 때
2. 내가 굶주렸을 때 나 영혼 목이 마를 때

주는 나의 목자 부족함이 무언가 때
내가 굶주릴 때 영혼 목이 마를 때

비록 험한 길이라도 두렵없이 가겠네
한량 없는 사랑으로 나를 보살피시네

비록 험한 길이라도 두렵없이 가겠네
한량 없는 사랑으로 날 보살피 주시네

저원 푸른 풀밭과 손님을 치러할 때
수악한 손님을 치러할 때

저원 푸른 풀밭과 손님을 치러할 때
수악한 손님을 치러할 때

나를 인도하시는 주는 나의 참 목자
군게 지켜주시는 주는 나의 참 목자

나의 참 목자

말씀예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주님, 오늘 우리는 영혼을 소란하게 만드는 온갖 소리와 문자와 기호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삽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창세기 2:15~17, 3:1~7 ... 고중흥 집사

성서교독 시편 32:1~11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복되고도 복되어라 이런사람 복되어라 거역한죄 용서받아 죄와허물 벗은사람
-주님께서 그의잘못 더파치지 않으시니 그마음에 거짓없는 이런사람 복되다네
내가입을 굳게닫고 죄를고백 안했을때 하루종일 신음으로 이몸탈진 되었다네
-밤낮으로 주님손이 이내몸을 짓누르니 이내몸은 여름가뭄 풀시들듯 말랐다네
주께죄를 고백했네 숨김없이 아뢰었네 주님께서 나의죄를 쾌히용서 하셨다네
-경건한자 고난때에 우리주께 기도하라 고난홍수 밀려와도 해침당함 없으리라
주는우리 피난처니 곤경에서 건져내어 구원노래 찬양속에 모든곤경 없이하네
-주님께서 우리갈길 가르치며 훈계하길 분별없는 노새처럼 되지말라 하셨다네
악인들은 번민고통 늘어나게 되겠지만 주를믿는 사람들은 사랑평화 늘어나네
-의인들아 기뻐하라 오직주께 감사하라 마음바른 사람들아 모두함께 기뻐하라

둘째말씀 로마서 5:12~19 ... 고중흥 집사

*셋째말씀 마태복음 4:1~11 ... 고중흥 집사

*응답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J. Stainer, 1870

아 멘 아 멘 아 멘 아 멘

아멘송

설교 생명왕권 ... 김동호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346장 (주 예수 우리 구하러) ... 다 함께